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영성’의 필요성

김재윤 (울산교회)

1. 강연에서 마리스 교수는 현대 종교에서 인기 있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특별히 그는 기독교적인 영성의 특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는 영성과 기독교영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길 원한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믿음을 그가 재조명하는 목적이다.

2. 그는 최근 영향을 미치는 영성의 중요한 문제점을 인간중심주의로 보고 있다. 칼빈과 루터의 신학에서 믿음의 개념은 이런 인간중심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루터의 경험의 신학이 성도의 경험 자체가 믿음의 기초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바르게 지적한다. 그는 칼빈에게서 ‘신뢰’라는 요소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오시안더의 신비주의와 칼빈의 신비한 연합을 대비하면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신-인의 본성이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장이 오시안더의 신비주의이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루니아를 반대하면서 칼빈만이 아니라 도르트 신경에서도 반 인간중심주의적인 믿음의 성격을 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언급들은 최근 유행하는 ‘영성’의 문제점이 지나치게 강조된 인간중심주의적 경향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영성 혹은 기독교영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또 어떤 학자를 대표자라고 말해야 할지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 아닌 건전한 기독교 영성 또한 일반적으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진 피터슨은 영성은 살아있음(livingness)이라는 방대하고 복잡한 망을 지칭하기 위해 현재 시점을 사는 사람들이 선택한 용어로 본다(유진 피터슨, 『현실, 하나님의 세계』, 원제 :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서울 : IVP, 2006, 63). 크리

스찬으로서의 삶 자체, 일상, 그 속에서 언어, 행동, 사고 등이 영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나의 견해로는 영성 혹은 영성신학의 유행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인격적 참여, 느끼고 경험하는 실재, ‘살아내기’에 대해 목말라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그래서 적어도 건전한 기독교 영성이라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을 추적하고자 한다. 예수와의 연합이 드러내는 삶의 실재를 설명하고 그것을 살아내는데 무게 중심이 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관람하는데서 머물지 않고 현재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막을 공연해 가시는 하나님의 무대에 오르고 싶어 한다.

이것은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무관하지 않다. 포스트모던 사회가 추상적인 사색을 반대한다. 오히려 포스트모던 시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미와 의에 대한 목마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추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이미지와 스토리의 문화이다(Timothy Keller, “The Gospel and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in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edited by John Piper and Justin Taylor, Wheaton : Crossway, 2007, 110). 이런 경향은 교회와 신학이 직면한 새로운 ‘이런 유’(막 9:28-29)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영성’의 유행은 개혁주의 신학에게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일종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를 요구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성신학 혹은 영성에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 근거해서 대답해야 하는 하나의 도전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4. 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발제자가 제시한 칼빈의 믿음의 개념이 기독교영성 자체 혹은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현재 논의되는 영성이 바른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경계선’이나 혹은 바른 기독교적인 영성이 가져야 할 ‘기초’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견해로는 발제자의 입장은 전자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건전한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시도들 혹은 ‘믿음’, ‘성화’와 같은 계시된 명제의 집합들보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필요를 따라 그것이 구체화된 내러티브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실제로 실현되는 믿음, 구체적인 실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것인가?

혹시 후자라고 한다면 크리스찬 영성을 추구하는 이들이 인간중심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칼빈이 제시한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그리스도와의 연합-성령의 증언으로서 말씀에 기반 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영성신학을 발전시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덧붙여서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 서클 안에서 영성신학을 추구하는 요스 다우마나 장로교 목사이면서 영성신학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유진 피터슨의 작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사역자들의 신학이 칼빈의 믿음의 영성에 완전히 일치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들이 하는 작업의 ‘방향성’과 ‘강조점’에 대해서 발제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